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미 내구재 주문 감소... 상업용 항공기 감소 탓
- Bloomberg: 10월 미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최고치... 금리 완화에
- CNNBusiness: 미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에 소매 체인들 매장 폐쇄

[미국 대선]

- NYT: 뉴욕타임즈 조사, 해리스와 트럼프 48% 동률 지지

[물류]

- WSJ: 연방 법무부, 볼티모어 다리 붕괴 선박 업체와 1억불 합의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4주째 상승... 6.54%

[중국 경제]

- Bloomberg: IMF “중국 경기 부양책 부족하다”
- CNBC: 2025년 중국 철강 수출 하락세 예상

[오일]

- WSJ: “OPEC+, 2025년 3분기까지 석유 증산 안 한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아마존 프라임, 새로운 주유 할인 혜택 발표
- Bloomberg: 일론 머스크, 전기차 충전소의 차별화 꿈꾼다
- CNBC: 맥도날드, 대장균 파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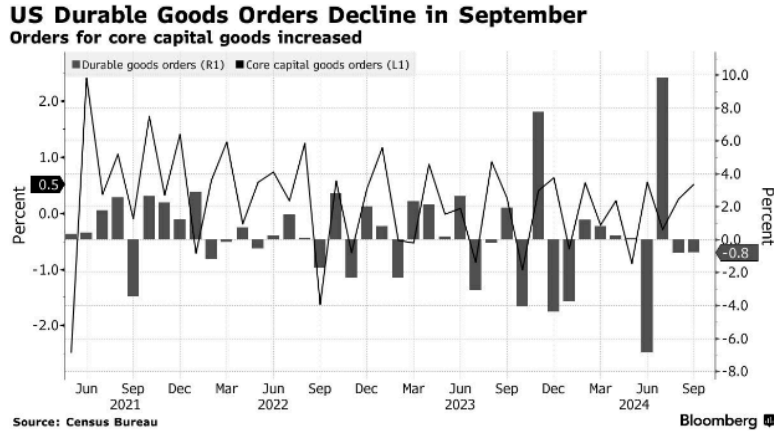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Orders for US Durable Goods Decline on Aircraft Bookings 9월 미 내구재 주문 감소... 상업용 항공기 감소 탓

- 9월 미 제조 내구재 신규 주문이 감소했다. 상업용 항공기 주문 예약이 비즈니스 장비 주문 상승을 상쇄할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 3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재 주문 총규모가 8월에 조정치로 0.8% 감소한 후에 9월에도 0.8% 줄었다고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운송장비를 제외하면 0.4% 상승했다.
-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비즈니스 장비 투자를 가늠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은 8월에 0.3% 상승한 후 9월에도 0.5% 상승했다.
- 상업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기계류와 컴퓨터, 전자 제품도 주문 예약이 감소했다. 자동차, 가공 금속 등은 주문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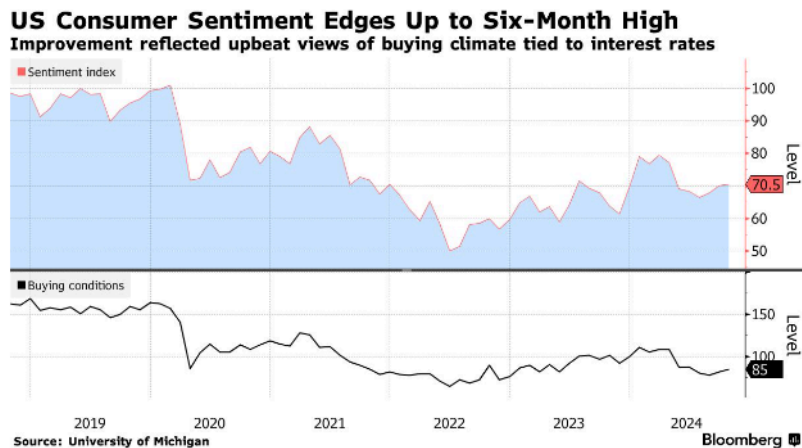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Rises to Six-Month High on Rate Relief

10월 미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최고치... 금리 완화에

- 미 가구들이 금리가 줄어들면서 구매 여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10월 미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 미시간대학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최종 수치는 9월 70.1에서 10월에 70.5로 상승했다. 당초 예비치는 68.9였다.
-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2.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조사와 변동이 없는 수치다. 이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평균 물가는 3%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의 3.1%보다 약간 하락한 수치다.
- 또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내년에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시사함에 따라 소비 지출은 계속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Consumers reach their breaking point, forcing retailers to shutter stores at a worrying pace

미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에 소매 체인들 매장 폐쇄

- 주요 소매 체인 중 하나인 패밀리 달러가 올해 677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월그린은 259개, Big Lots는 360개, 그리고 LL Flooring은 모든 매장을 폐쇄했다.
- Coresight Reserch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폐쇄된 매장은 6천1백89개로 작년의 5천5백53개를 넘어섰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올해 매장이 많이 폐쇄됐다.
- 소비자들이 새 소파, 텔레비전, 의류 등을 구매하던 지난 2021년과 2022년 최고 성수기가 끝나면서 매장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자율 상승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이나 모기지, 자동차 용자 등을 위해 돈을 빌리는 건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 결국 한계에 도달한 소비자들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월마트, 코스트코, 홈데포 등 대형 체인들과의 경쟁도 상대적으로 작은 이들 소매 체인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CNNBusiness 기사

[미국 대선]

NYT: Harris and Trump Deadlocked to the End, Final Times/Siena National Poll Finds

뉴욕타임즈 조사, 해리스와 트럼프 48% 동률 지지

- 뉴욕타임스와 Siena College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48% 동률이었다. 선거가 2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은 이미 사전 투표를 했다.
- 미 정치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3개월을 지난 이후에도 양 후보는 철저히 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이목을 집중시킨 토론회, 트럼프에 대한 두차례의 살해 시도, 7개 경합주에서의 수십 차례의 캠페인, 그리고 수억 달러가 소요된 광고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 양 후보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이민(불법 이민) 이슈에 대해 바이든과 해리스를 비판하고 있다. 응답자의 15%는 이민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번 12%에서 늘었다.
- 반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경제 처리 능력에 대해 해리스는 지난번 여론에서 13%포인트 뒤졌지만, 이번에 격차가 6%포인트로 줄었다.

NYT 기사

[물류]**WSJ: Justice Department Settles Baltimore Bridge Collapse Suit for \$100 Million****연방 법무부, 볼티모어 다리 붕괴 선박 업체와 1억불 합의**

- 연방 법무부는 볼티모어 다리를 붕괴시킨 선박 업체들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는 데 합의했다. 이 비용은 다리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이번 합의는 Dali라는 선박회사에 소송을 제기 한 지 한달 만에 이뤄졌다.
- 이 선박은 3월 26일 오전에 동력 가동 실패로 다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볼티모어 항만에 물류 혼란을 가져왔다. 배상금을 지불한 회사는 싱가포르계 회사다. 선박 소유 회사와 관리 회사 두 곳이 배상금을 지불했다.

WSJ 기사

[주택]**Bloomberg: Mortgage Rates in US Rise for Fourth Week, Climbing to 6.54%****미 모기지율 4주째 상승... 6.54%**

- 미 주택 모기지율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년 모기지율은 지난주에 6.44%에서 6.54%로 상승했다고 어제 목요일 Freddie Mac은 발표했다.
- 모기지율이 지난 8월 초 이래 이처럼 상승한 적이 없었다. 60만 달러를 융자했을 경우 월 상환액이 3천8백8불이 되는데, 이는 지난 9월 말 모기지율이 6.08%였을 때 월 상환액 3천6백28불이었던 것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 한편 투자자들이 오는 11월 초 금리와 관련해 연준이 처리할 기대치를 조정하면서 최근 몇주 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최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강한 경제 지표들이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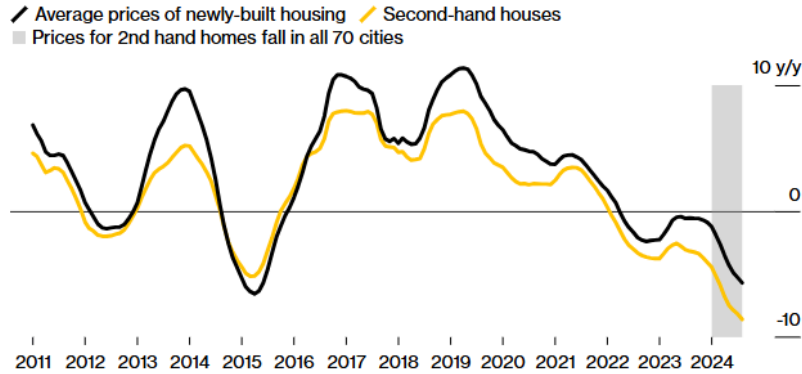
[중국 경제]**Bloomberg: Chinese Stimulus Insufficient to Curb Deflation Risks, IMF Says****IMF “중국 경기 부양책 부족하다”**

- IMF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최근 경기 부양책은 디플레이션을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IMF 아시아 태평양 부서장 Krishna Srinivasan은 부동산 폭락과 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Srinivasan은 “내수가 매우 약하다. 발표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GDP의 약 5%를 주택 가격 안정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GDP의 약 5%면 3천억 위안(8천8백50억 달러)에 달한다.
-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며칠 전 중국 정부는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최소 계약금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약 5천만 가구가 1천5백억 위안의 모기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China's Home Prices in Worst Slump on Record

Prices for second-hand homes falling in all 70 surveyed cities this year



Source: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loomberg calculations

Bloomberg 기사

CNBC: China's steel exports expected to falter in 2025 as pain from tariffs spread

2025년 중국 철강 수출 하락세 예상

- 2025년 중국 철강 수출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 대응 문제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철강 컨설팅 회사 Mysteel의 분석가 Ren Zhuqian은 반덤핑 조치로 내년 중국 철강 수출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제조업 둔화로 어렵다. 내수 시장의 부진과 공급 과잉 문제로 중국 철강 업계에게 해외 시장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은 1억 톤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중국의 저가 철강의 범람은 관세를 포함한 반덤핑 조치를 야기했다. 태국은 열연코일에 31%의 반덤핑 관세를, 멕시코는 작년 말 일부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80%의 관세를, 브라질은 이번 달 중국의 모든 철강 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CNBC 기사

[오일]

WSJ: OPEC+ Isn't Expected to Hike Oil Output Until 3Q 2025, BNP

Paribas Says

“OPEC+, 2025년 3분기까지 석유 증산 안 한다”

- BNP Paribas의 Aldo Spanjer은 OPEC+가 지속적인 시장 약세 때문에 2025년 3분기까지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건 수익 손실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 유럽 시장 초반 브렌트유는 0.1% 하락한 73.93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1% 하락한 70.11달러에 거래됐다. 한 주 단위로 보면 각각 1.2%와 2.1% 상승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석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Amazon Prime introduces a new benefit to save on gas 아마존 프라임, 새로운 주유 할인 혜택 발표

- 아마존 프라임에 주유 할인 혜택이 새로 추가됐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미국 전역의 약 7천 개의 BP, Amoco, AM/PM 주요소에서 갤런당 10센트(연평균 약 7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 GlobalData Retail의 소매업 분석가 Neli saunders는 “아마존은 더 많은 혜택을 추가해 고객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유 혜택 추가도 월마트+, Target Circle 360, Wayfair Rewards 등과의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 하지만 Saunders는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은 분산된다. 혜택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 아마존은 단순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걸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98달러인 월마트 멤버십과 99달러인 Target 멤버십에 비해 139달러인 아마존 프라임은 고객들에게 너무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Elon Musk's Dream of a Drive-In Movie Diner With EV Charging Is Taking Shape 일론 머스크, 전기차 충전소의 차별화 꿈꾼다

- 테슬라가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50년대 식당을 테마로 한 충전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 로스앤젤레스시에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여기엔 28개의 매점, 2개의 영화 스크린, 테슬라의 고속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 이번 테슬라 충전소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단순한 주요소 사업에서 벗어나 충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 브랜드가 단순히 자동차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전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BC: What McDonald's needs to do next after E. coli outbreak
맥도날드, 대장균 파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맥도날드 쿼터파운드 버거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10개 주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49명에게 대장균이 발병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 대장균 오염 물질은 버거에 쓰인 양파로 지목됐다. 해당 양파의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 채소 생산업체 Taylor Farms다.
- 이번 발표 이후 대장균 파동이 맥도날드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맥도날드의 후속 대처에 달렸다.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성공했는지, 고객들이 다시 안심하고 매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는지가 관건이다.
- 맥도날드는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시진핑표 부양책에 미국 등 회의론..."성장률, 4% 이하 가능성도"
IMF 총재, 성장 둔화 경고...옐런 美재무도 "과잉생산 해법 없어"
이달 말 전인대 상무위서 추가 부양책 나올지 주목

중국이 경제 침체를 타개하려고 잇따라 내놓은 경기 부양책을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적해온 과잉생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데다 시장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심 차게 내놓은 최근의 경기 부양책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례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경제 담당 고위 당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24. 10. 25. 오후 2:32

Email from KOCHAM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